地理學論叢 第24號(1994. 8), 83-107.

서울市 中小河川의 景觀變遷에 관한 硏究*

노혜정**

< 차 례 >

Ⅰ. 머리말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연구지역 개관
Ⅱ. 도시내 하천
Ⅲ. 서울市 河川景觀의 變遷
1. 朝鮮시대의 하천경관
2. 일제시대의 하천경관
3. 해방 이후의 하천경관
Ⅳ. 하천경관의 함의
1. 하천경관의 변화요인
2. 하천의 사회적 기능변화: 인간-하천 관계의 변화
Ⅴ. 사례: 淸溪川 景觀의 變遷
1. 朝鮮시대의 淸溪川
2. 日帝시대의 淸溪川
3. 해방 이후의 淸溪川
Ⅵ. 맺음말: 요약 및 결론

主要語 : 문화경관, 하천경관, 하천형태, 하천변 공간이용, 암거, 복개하천, 하천의 사회적 기능

Ⅰ. 머리말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20세기에 들어와 Schlüter, Sauer, 그리고 Darby 등에 의해 경관(landscape)이 지리학의 중요한 연구대상이 된 이후[1] 경관 그 자체나 경관의 변천 등에 관한 연구가 많은 관심을 끌어왔다. 특히 경관변천의 연구는 변화과정을 추적하거나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혜은, 1992, 205). 이 때 경관이란 환경과 인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 문화경관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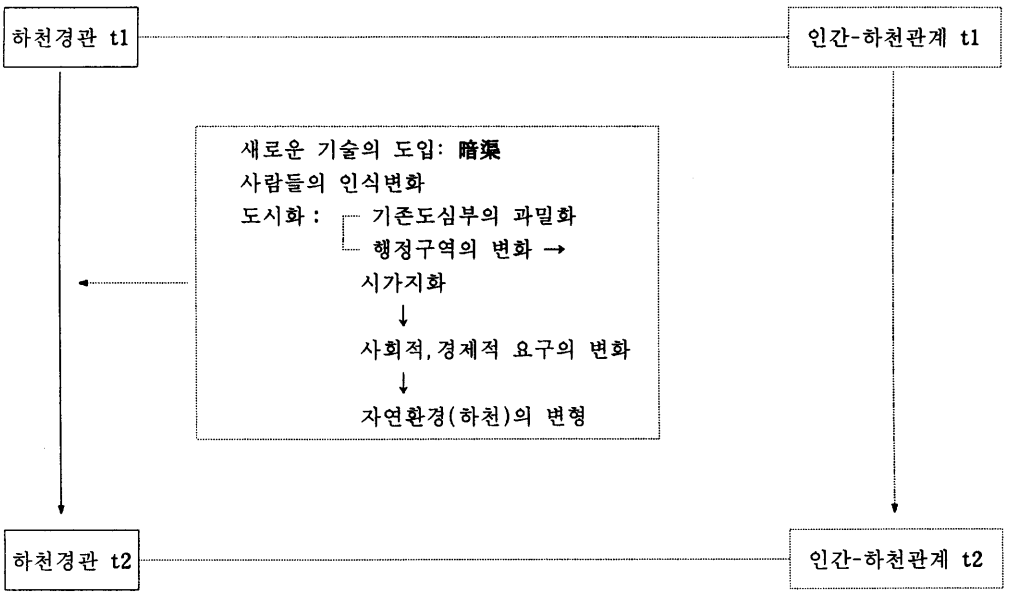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는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소이다(Detwyler & Marcus, 1972, 5). 도시는 그것의 사회적·경제적 역동성(dynamism)때문에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을 변형시키는 것에 의해, 도시의 중요한 기능을 변화시키는 것에 의해 변화에 적응할 수 있었다(Hartshorn, 1992, 99). 그 결과 많은 도시의 자연환경은 자연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고 대개는 사회적인 인공환경(human construct)이다. 이러한 도시의 자연환경 중의 하나인 하천 또한 변하는 사회적·경제적 구조의 요구에 의해 변형되어 왔으며 현재도 계속 변화를 겪고 있다(Gregory, 1985, 54).[2]

그동안 도시의 하천은 그 주변이 모든 종류의 시설용지로서 또 이용대상으로서 가장 경제적이라는 이유로 심하게 남용되었다(Roy Mann, 1973, 14-15). 그리고 획일적인 高堤防 축조공사 등으로 옛날의 그 다양함을 잃어버리고 도시사람들의 생활과는 격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서울의 경우 도심에 있던 모든 小河川이 복개되어 이미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서울시 35개 법정 하천중 12개 하천이 이미 복개되어 지상에서의 그 존재가 사라져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도시속을 흐르는 하천의 존재가 그 도시와는 어떤 관계에 있으며, 공간적 표현인 하천경관의 형성과 그 변화 이면에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그 도시형성과 더불어 있는 하천의 참모습을 찾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하여 본 논문의 목적은 서울의 中小河川들을 대상[3]으로, 文化景觀의 입장에서 첫째, 서울시 하천경관

*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논문을 지도하여 주신 박영한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가시적 하천경관 ┌ 하천형태(인공적인 측면: 覆蓋의 유무)
└ 하천변의 공간이용
* 인간-하천관계 → 하천의 사회적 기능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림 1. 분석틀

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하천경관의 변화에 관련된 요인, 하천의 사회적인 기능의 변화에 대해 파악해 봄으로써 가시적인 경관이 含意하고 있는 바를 살펴보는 것이다.

2. 연구방법 및 연구지역 개관

1) 연구방법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하천경관이 본격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판단되는 1906년 이후 즉 일제시대부터 현재까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하천경관의 본격적인 변화 이전의 모습 즉 조선시대의 하천경관에 대해서도 연구된 문헌을 통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편의상 일제시대는 1913년의 市域으로 한정하여 특히 도성 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해방 이후는 현재의 시역과 거의 일치한다고 판단되는 1973년 행정구역개편에 의한 市域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는 지도를 가장 중요한 자료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약 100년에 이르는 시간적 범위로 인하여 같은 축척의 지도를 이용하지 못했음을 밝혀 둔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시사자료 Ⅰ~Ⅶ」과 신문기사를 참고로 내용을 보충하고 지도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였다. 그 외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각 년도 「市政」과 서울史에 관련되는 많은 문헌들을 참고하였다.

2) 용어정리

ㅇ하천

하천법[4] 제2조 1항에 의해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사회적인 의미). 우리나라의 하천은 하천법에 의해 <표 1>과 같이 구분된다.

본 논문에서는 하천법에 의해 지정되어 있는 하천을

표 1. 하천의 구분

법정하천 (건설부에서 관할)	비법정하천 (내무부에서 관할)
지정하천-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中川-하폭 11~20m 小川-하폭 6~10m 細川-하폭 2~ 5m

출처: 국토개발연구원,1991; 건설부 수자원국, 1991

대상으로 한다.[5] 그리고 하천을 편의상 자연적인 요소와 인공적인 요소로 구분하여 특히 후자 즉 사회적·기술적 층위의 경관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다.

ㅇ하천경관

하천을 바라보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인간-하천 상호작용의 공간적 표현으로서 하천 자체와 하천변 공간 이용형태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모습을 하천경관이라고 본다.

3) 서울시 하천현황

서울시에는 하천의 관리구분에 따라 3개의 직할하천, 1개의 지방하천, 그리고 31개의 준용하천이 있어 1992년 현재 총 35개의 하천이 법정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중 12개의 하천이 완전 복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중소하천이 일부 복개되어 있다. 그리하여 1992년 현재 법정하천 전체연장 237,715m 중 48,184m가 복개되어 있다(그림 2).

Ⅱ. 도시내 하천

도시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경관의 변형은 환경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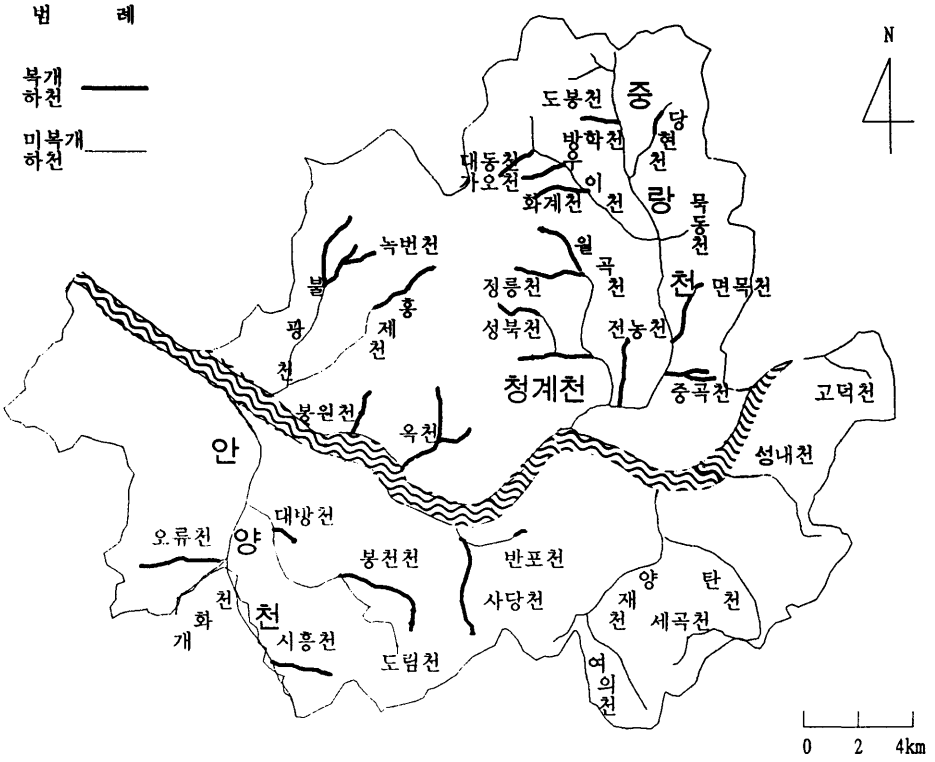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시 하천도[6]

인 과정(environmental processes)에 많은 영향을 준다. 특히 하계(stream regimes)가 유역(watershed)의 변형에 의해 크게 변화되었으며, 지표수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덮임에 따라 더 가변적이 되었다. 그리하여 자연경관은 특히 대도시의 발달된 지역에서 도시화에 의해 완전히 변형되었는데, 도심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인공적인 도시경관으로부터 좀 더 자연적인 경관으로의 전환이 나타난다. 도시에서의 많은 지역이 개발가들에 의해 변형되었다. 이 과정동안에 지형이 바뀌었고, 자연식생이 제거되었고, 토양이 제거되거나 덮였고, 開渠하천이 暗渠[7]로 밀폐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된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Hartshorn은 도시화의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현대의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으로 이어지는 사고방식, 경제적 이해, 소비사회 등의 상황에서 자연환경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하기보다는 더 많은 기술을 적용시킴으로써 해결하고자 하며 결국 자연환경의 필요성(need)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보았다(Hartshorn, 1992, 97-116).

이러한 도시의 자연환경 중에서 하천에 대한 관심과 문제제기가 1970년대 후반 이후 끊임없이 있었다. 治水측면에서의 도시 河川 改修와 하천공간의 이용 특히 고수부지의 위락공간으로서의 이용, 도시내의 하천환경이 1960년대의 공업화에 따른 고도의 경제성장과 급격한 도시화 전개과정에서 극도로 악화되었다는 전제하에 하천을 도시생활공간의 가장 중요한 장으로 만들기 위한 도시의 하천미화와 하천공간이용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Roy Mann은 도시하천의 경관 특히 親水性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는 도시하천의 주변이 모든 종류의 시설용지로서 또 이용대상으로서 가장 경제적이라는 이유로 심하게 남용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도시의 하천변에 존재하는 이슈와 환경적 가치를 생태학적, 심미적, 토지이용변화의 측면에서 구미에서 하천변이 이용되는 방식을 비교연구 하였다.

유경희(1986)는 서울의 도성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의 하계형태 및 기능의 변화과정을 고찰하고 하계형태의 변화가 도시에 미친 영향을 역사지리적인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도시의 근대화(1910년)를 기준으로 자연하계가 인공하계로 변화해가는 모습에 초점을 두고, 근대화이전과 이후의 도시하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하천공사는 도시의 중심성을 반영하며 둘째,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고 도시기능이 미비한 전근대도시에서는 자연하계형태를 따랐는데, 근대도시에서는 암거시설의 도입으로 자연하계는 변형되거나 제거된다. 이와 같은 하계변화는 결국 도로망, 주변토지이용, 도시환경에 영향을 주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러한 한 지역의 하천에 관한 역사적인 연구는 하천경관의 이면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Ⅲ. 서울市 河川景觀의 變遷

도시내 소하천은 도시화의 과정에서 쉽게 覆蓋되거나 暗渠 배수구로 바뀐다든지 주변의 개발에 따라 유로의 형태가 전환되기도 한다. 즉 도시화에 의해 하천은 사라진다. 그리하여 더 많은 양의 개발가능한 토지가 생겨난다.

이때 변화의 주체는 개인이라기 보다는 행정부이다. 하천법 제 4조에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하천의 公共的인 특성으로 인하여 복개의 결정과 시행은 주로 행정부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복개된 하천은 주로 도로나 주차장으로 이용된다.[8]

한편 하천 자체와 함께 하천경관을 구성하는 하천변의 공간이용도 하천형태의 변화와 더불어 변화해왔다. 특히 도시의 하천은 그동안 그 주변이 모든 종류의 시설용지로서 또 이용대상으로서 가장 경제적이라는 이유로 심하게 남용되었다(Roy Mann, 1973, 14-15). 우리나라에서 도시하천 고수부지를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홍수기를 피하여 일시적인 경지로서 서울 근교를 중심으로 채소류 및 기타 작물을 재배하여 왔다. 그러나 이같은 하천부지의 농업적 이용은 어디까지나 민간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수행된 것이며 정부의 예산을 뒷받침한 사업으로 행하여 진 것은 아니었다.

한편 6.25동란으로 서울의 시가지 태반은 파괴되었으며, 1956년 이후에는 폭발적인 서울의 인구집중으로 도시시설의 부족현상, 사회적인 불안, 자연경관의 파괴는 물론 공원용지나 국유하천은 무허가판자촌과 불량주택이 들어서게 되어 도심주변 하천변의 고수부지는 무허가판자촌으로 전환되었으며, 토목과 건축을 위한

골재원의 공급처로서의 역할도 하였다(이평재, 1974, 12).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서울시는 격증하는 도시공간녹지의 수요를 메우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서울시내에 있는 大小하천변의 고수부지를 시민들의 휴식처로서 제공하는 한편 각종 묘목 등을 재배하는 생산용지로 활용하는 등 본격적인 하천부지의 공원녹지로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신상혁, 1976, 22-23).

그리하여 이러한 하천변 공간이 대부분 국공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하천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公共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이상과 같은 하천경관은 과거를 현재의 시간에 끊임없이 중첩시켜 온 것으로 그 역사적인 모습을 읽어봄으로써 감추어진 층위, 변화에 숨겨져 있는 요인들을 읽어낼 수 있다. 현재 서울시 하천경관 또한 각 시대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모습에 맞게 변화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1. 朝鮮시대의 하천경관

조선시대의 서울(漢城府)은 1394년에 太祖가 遷都하면서 수도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도성내에 흐르는 크고 작은 하천들[9]은 도시의 雨水와 汚水를 배수시키는 하수도의 기능을 수행했다. 해마다 집중호우로 하천은 배수기능을 다하지 못하였고 도시재해를 일으켰다. 그리하여 국초부터 개천공사 및 준천공사를 시행했고, 하천관리에 대한 위정자들의 관심이 지대했다.

특히 太宗은 한성을 李朝의 확고한 새 都邑地로 정한 후 도읍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 첫째가 開川의 공사였으며 다음이 市廛의 건설이었다(건설부 국립지리원, 1984, 167). 서울과 같이 四面이 산악과 구릉으로 둘러싸였으며 그 산록들에 바로 궁궐과 인가가 인접해야 한다는 지리적 여건 하에서 수도를 건설하고 많은 인가가 일시에 건설되는 경우 배수처리는 무엇보다도 앞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였다. 그리하여 태종 12년(1412년) 開川都監의 설치와 함께 개천공사가 완공되었다. 이후 세종대에 농한기를 이용해 개천공사[10]가 실시되었다. 한편 개천 및 교량에 관한 업무는 제 1차 개천공사 때 開川都監, 세종 대에 工曹[11]→都城修築都監→工曹→修城禁火都監에서 관장하다가 세조대에 修城은 공조로 禁火는 漢城府로 이관되었는데 川渠와 橋梁수축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이것은 개천공사도 끝나고 교량도 제대로 가설되어 큰 파손이 없으니 이에 관한 업무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였던 것 같다(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78, 321). 이후 약 300여년간은 개천이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 토사가 쌓임에 따라 큰비가 오면 개천이 범람하고 홍수의 피해를 입음에 따라 浚渫공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영조대에 개천준설의 대역사를 마치고 濬川司를 두어 하천관리를 제도화하였다(손정목, 1977, 361-377).

그리하여 한성부내에서의 하천관리는 조선전기의 開川공사와 후기의 濬川공사로 대별할 수 있다. 개천공사는 자연하천의 하상을 파고 제방을 쌓아 開水路서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고, 준천공사는 기존의 개천에 쌓인 토사를 浚渫하는 것이다(유경희, 1986, 15). 그러나 이 시기에는 원래의 자연하계[12]를 따라 그 형태가 계속 지속되어 조선말기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것은 조선시대 한성지도들에서 하계망은 그 형태가 항상 일정했다는 점에서 입증된다(유경희, 1986, 24).

한편 19세기 후반에 조선왕조가 문호를 개방함에 따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도시 등 각 분야에 근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하천의 형태도 근대적인 도로개수, 하수도사업과 더불어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구한말 도입된 암거공사는 이후 서울 전지역으로 확대되면서 하천형태를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최초의 암거지역은 泥峴[13]지역이며, 이는 도로개설[14]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1930년 발간된 「경성도시계획서」[15]에 대한제국시대에 6,832m의 암거가 건설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991, 196).

2. 일제시대의 하천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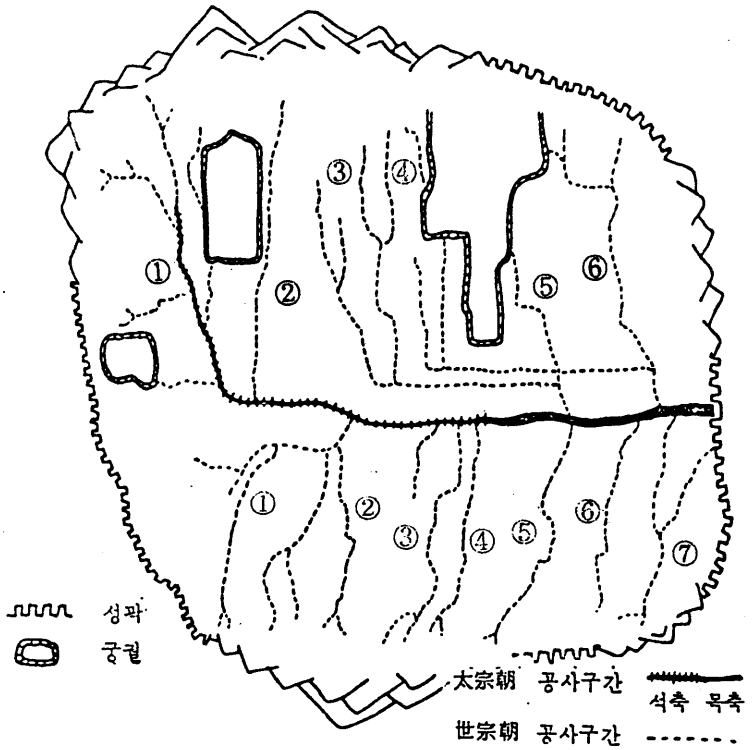
1) 京城府의 사회적 배경: 식민지시대의 근대적 도시화기

1910년 일제강점이 되고 본격적인 근대적 시가지조성과 하부구조의 토목사업 나아가 도시구조의 변화와 기능지역의 분화가 일제 36년간 이루어졌다. 일제의

통치 전기에 해당하는 1930년대까지는 주로 도시의 하부구조 改修사업에 역점을 두어 시가지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진척시켰다.[17] 이와 더불어 하천의 형태도 근대적인 도로개수[18], 하수도사업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때 가장 중점을 둔 개수목표는 첫째, 민족의식을 상징하는 사적이나 시설을 없애고 일본식 도시상을 갖는 도시로 개조하는 일, 둘째 서울역에서 용산과 원효로에 이르는 서울 남부에 新京城市街地를 조성하여 일본인 居留地를 확보하는 일이었는데, 이는 식민지통치의 거점도시로 개조하는데 정책적 목적을 두었다(김인, 1984, 48). 그리하여 청계천 이북은 한국인, 이남은 일본인 시가로 민족적 거주지역의 남북분화가 이루어졌고, 일본식도시로 개수되었다.

한편 이 시기 도시의 근대화가 식민지 정책에 의해 감행되었고, 식민지 지배를 위해 도시가 개조되고 건설되었음(강대현, 1980, 55)을 하천형태의 변화과정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다.

"부내 중요대하수구의 공사는 금년도로서 끝맺을 제2기 공사로 대체로 완성이 된다. 그러나 이 밖에 소하수구만은 아직도 원시적 상태를 벗지 못한 채 그대로 不備하여 있다. 특히 조선인의 거류지 北村이 더울 불완전하다... 이를 완성하기 전에는 언제나 부내의 40만 부민이 전염병의



*개천북쪽의 6개 지류
①백운동 시냇물:청운천
②삼청동 개울물:중학천
③북영의 개울물
④院同 계생동의 여러 개울
⑤옥류천 물(창경궁 후원)
⑥홍덕동의 여러 개울물(성균관 부근) : 대학천

*개천남쪽의 7개 지류
①창동 시냇물(남산 밑); 창동천
②남산골의 시냇물
③주자동의 시냇물
④필동 시냇물; 필동천
⑤묵사동 시냇물
⑥쌍리동 시냇물
⑦남소동 개울물; 장충천

그림 3. 청계천과 그 지류[16]

위협을 받게 될터임으로 위생상 당연히 그를 촉진시켜야 하며, 경성의 도시미관상으로도 하루 속히 완성해야 된다."(동아일보: 1931. 7. 18)

"현재 부내의 하수구는 도로개수가 불완전한 북부 일대에 더욱 많아서..."(동아일보: 1934. 7. 19)

"전염병균의 근원지라고 할 만한 부내의 하수구는 부내 각처에 개수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조선인 시가에 더욱 많다."(동아일보: 1935. 6. 9)

한편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은 농촌인구를 압출하여 도시로의 인구유입을 초래하였고 그 중 일부가 만주 등 해외로 이주하여 이들이 해방후 급격한 도시집중을 초래한다. 특히 1930년대 이후는 식민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농민층을 몰락시켜 도시로의 유입요인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발전이 상대적으로 지체되고 과잉인구가 적체되어 도시빈민의 집단거주지인 토막민 거주지가 형성되었다(이규인, 1989, 12). 이러한 토막민 거주지는 성내에는 감시가 엄중한 탓으로 다리밑, 담벼락, 성벽 등지에 소규모로, 감시가 비교적 소홀한 도시주변에는 하천제방, 구릉지, 절벽 또는 성벽 밑, 산림지 등에 약간의 空閑地만 있으면 그곳을 宅地化하였다(남영우, 1989, 45).

2) 京城府의 하천경관

(1) 하천형태의 변화

1918년 경의 하천[19]을 살펴보면 첫째, 1912년의 태평로 개수가 회현 지역의 대로변 수로제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유경희, 1986, 34-35), 둘째, 大路와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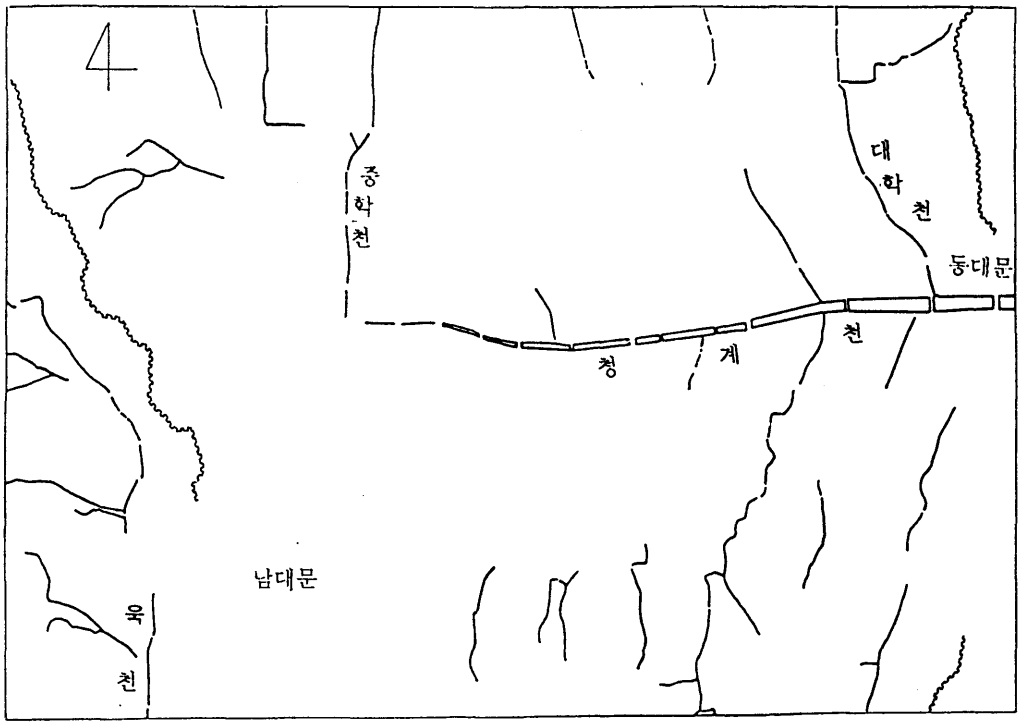


그림 4. 1947년경의 하천도 (출처: 1947, 서울特別市精圖, 1:6천)

천이 접하는 곳도 대로의 근대적 도로개수와 함께 암거로 되어 하천이 끊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도성 밖의 욱천과 그 지류가 지상에서 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서울역에서 용산과 원효로에 이르는 서울남부의 일본인들을 위한 新京城市街地 조성과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1918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1920년대와 1930년대를 거치는 동안 많은 지역의 하천이 지상에서 사라지고 암거로 되었다. 특히 청계천의 지류인 청운천의 일부가 제거되고 청계천 복개계획이 세워져 본류의 일부구간이 복개되기 시작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 시기의 하계의 변화를 해방직후에 나온 1947년 경의 지도(그림 4)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청계천 본류의 복개가 시작되었고 둘째, 도성내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중학천, 대학천 등을 제외한 나머지 하천이 모두 지상에서 사라졌다. 셋째, 도성밖의 욱천과 그 지류들이 지상에서 많이 제거되었다.

이상과 같은 일제시대의 하천형태의 변화는 우선 근대적 하수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1917년)까지는 주로 도로개수와, 그 이후는 하수도공사와 관련이 있다. 1910년대부터 지도상에서 하천이 본격적으로 사라지기 시작했던 회현지역은 일찍이 일본인 거주중심지로서 19세기말부터 도로신설 및 도로개수에 힘써 온 곳이다.

한편 일제에 의해 실시된 근대적 하수공사(표 2)는 경성부의 하천형태를 본격적으로 변화시켰다. 일본이 이러한 하수도공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경성부내는 城內를 관류하는 청계천과 서부 용산방면으로 흐르는 旭川을 雨水 또는 汚水의 排水幹線으로 하고 있다. 조선총독부 설치 당시의 상태는 兩川 共히 토사로 매몰되고 各支流는 전혀 계통이 서지 않으며 분뇨가 各支溝에 방류되어 정체됨에 따라 실로 불결하기 짝이 없었으며 一朝豪雨라도 쏟아지면 濁水가 일대에 범람하여 교통위생상은 물론 수도로서의 면목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였다."(경성부, 1938, 63)

"하수가 근본문제, 경성부의 큰 문제는 개천의 설비, 파리와 모기도 여기서 생기는 것..."(동아일보: 1921. 4. 23)

(2) 하천변 공간이용

표 2. 일제에 의한 하수도개수공사

단위:m

期 間	暗渠延長
제1기(1918~1924)	4,690
제2기(1925~1931)	6,830
제3기(1933~1936)	19,507
제4기(1937~1939)	8,397

출처: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81

「經國大典」 工典 橋路條에는 도로내의 도로나 水溝를 侵占하거나 收取하는 자가 있으면 해당 각부의 관리나 관령을 처벌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또 「육전조례」 戶典 漢成府 家舍 田土조에는 하천부지를 침범하여 집을 짓거나 도로를 침범하여 집을 넓히는 행위는 금단한다고 규정하였다(손정목, 1977, 349-351). 「漢京識略」에는 서울 거지떼의 움집이 광통교와 효경교 밑에 있었으며 매년 섣달 추울 때에 왕이 선전관을 보내어 보살피고 호조에 분부하여 살과 포를 주워서 얼거나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는 빈민 구휼에 관한 내용이 있다(권태익 역, 1981, 178).

이상과 같은 기록으로 보건대 하천변 무허가 건물이 하천공간이 국공유지인 점을 이용하여 조선시대부터 단편적으로나마 존재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하천변 무허가건물의 분포와 통계가 기록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일제시대에 들어와서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은 사회적 배경 하에서 하천부지 혹은 임야, 그 밖의 관유지를 무단점거하여 거주하는 자인 이른바 '토막민'이 1920년대 초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1930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그 중 하천부지 즉 제방상이나 교각 밑에 자리잡고 있던 토막은 1927년에 청계천 제방의 89호, 1940년에 안암천과 정릉천 沿邊의 1238호, 한강 주변에 200여호가 분포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유형의 토막촌은 하천부지가 공유지이고, 전차가 통과하여 도심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점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남영우, 1989, 45).

3. 해방 이후의 하천경관

1) 서울시의 사회적 배경

(1) 1950년대: 戰災와 그 복구의 시대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는 6.25전쟁 전후의 혼란, 복구, 재건으로 이어지는 시기로서 이 시기를 특징지울

만한 것은 인구의 과다집중으로 인한 과대도시화(표 3)로 구도시 주변의 구릉, 하천변, 계곡 등지에 무허가 건물이 난립하게 되었다(강대현, 1980, 169).

표 3. 1950,60년대 무허가 불량주택 현황

연도	무허가불량주택/전체주택(%)
1949	13.7
1958	18.3
1961	31.9
1964	35.9
1966	37.7

출처; 장세훈, 1987

급격한 사회변동과정에서 이 시기 무허가 판자촌은 정책적으로 용인되었으며, 이는 1950년대 도심근처 무허가 판잣집의 지속적 증가를 가져왔다.

(2) 1960년대: 개발의 시대, 급격한 도시화의 시대

1962년에 시작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967년부터 제2차 5개년 계획으로 이어진다. 1961년에서 1970년까지 10년간 대도시로의 인구 편중집중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리하여 종전의 도시규모로서는 새로운 증가인구를 흡수, 수용할 수가 없게 되고 구획정리사업 등에 의한 새로운 주택지 조성과 도로의 신설, 확장에 온 힘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이와 같은 현상은 1960년대 후반기에 두드러져 이렇게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는 시정책임자들에게 불도저 시장이니 탱크시장이니 하는 별명이 붙기까지 했다(손정목, 1988, 169). 한편 도로사업에 있어 일석이조의 실을 거두는 전환점이자 도시모습을 일신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된 도성내 청계천복개공사 이후 도심내의 복개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1965년 발표된 시정 10개년 계획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하천복개연장은 11,542m인데, 10년 후인 1975년까지 32,816m(덮어야 할 하천의 70%)를 복개할 계획이다."(조선일보: 1965. 2. 4)

이는 도심의 고층화, 중심업무지구화와 더불어 상주인구가 외곽으로 분산됨에 따라 교통량이 많아져 더 많은 도심도로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1950년대 이후의 인구과잉집중은 심각한 주택부족을 불러일으켜 불량, 무허가건물이 계속 증가하였다. 특히 청계천변, 중랑천변 그리고 각 산록에 판잣집이 밀집되었는데, 도심부에 흩어져 있던 판잣집은 강제철거하여 변두리에 집단 이주시켰다(손정목, 1988, 170).[20]

(3) 1970년대

1970년대 도시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건은 1972년말에서 1973년 말에 걸친 제 1차 유류파동과 1979년에 일어난 제 2차 유류파동이었으며 이 두 차례의 충격으로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鈍성장, 低성장으로 전환하며 이와 궤를 같이하여 개발,확대 일변도에서 개발과 보전으로 그 정책방향을 바꾸게 된다. 전국 주요 도시주변에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됨으로써 무질서한 평면 확대에 강한 쐐기를 박았으며 서울시는 종전까지의 도시계획국을 도시정비국으로 그 명칭을 바꾸었고 1976년과 1977년을 도시정비의 해로 정하여 도시시설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었다. 그리고 1976년에는 수질보전문제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하수처리가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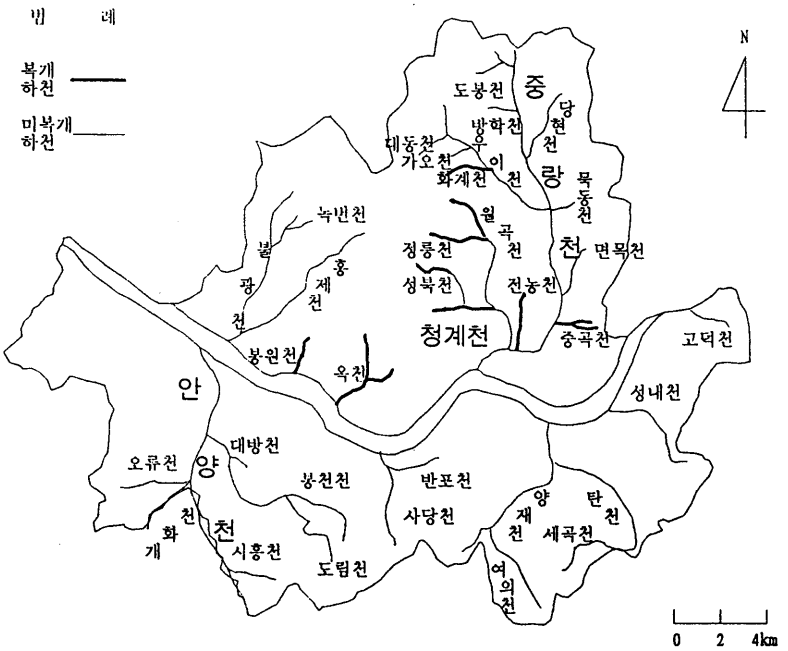
한편 1971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에서 재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되었고, 1976년에는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되어 무허가건물에 대한 개발, 철거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하천변 무허가건물이 입지의 성격상[21] 가장 적극적으로 철거되어 갔다.

그리고 교통문제에 있어서, 항상 시속 40킬로 이상이던 도심부 승용차 운행속도가 갑자기 둔화되기 시작한 것은 1973~1974년경부터의 일이었다. 도로의 신설, 확장, 전자감응식 신호체계, 시차출근, 고교일률입시제와 철저한 학교군제도, 학원 및 예식장의 서대문밖 이전 등 여러 가지 시책이 강구되었으나 급격한 차량의 증가에 따라갈 수 없었다(손정목, 1988, 194). 이러한 상황에서 도로개설에 보상비 하나 들지 않는 하천복개만큼 매력적인 방안은 없었다. 그리하여 1970년대 후반에는 복개가 서울시역 전체로 확대되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4) 1980년대 이후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 걸쳐서 특기할 것은 환경에 대한 국가적 배려였다. 自然公園法과 都市公

① 1980년대 이전



② 1980년대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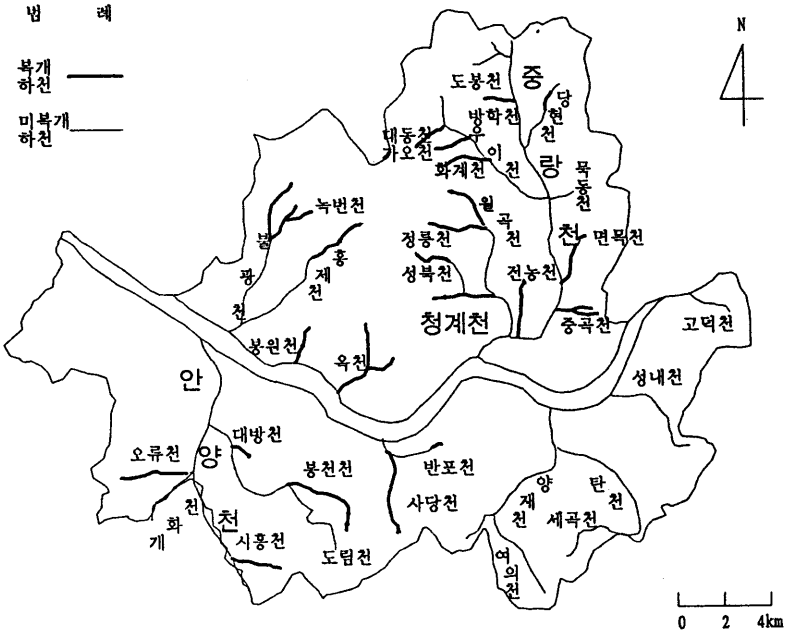


그림 5. 해방 이후의 서울시 하천 복개과정 : ①1980년 이전, ②1980년 이후

園法이 제정,발포된 것은 1980년 1월 4일자 법률 제 3243호와 제 3256호였다.

특히 서울 도심부는 과밀화로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1960년대 후반부터 개발되기 시작하는 주변지역의 장기간에 걸친 개발로 무질서한 시가지의 평면적 확산만을 가져옴으로써 교통의 혼잡, 각종 공해의 발생, 자연공간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천제방의 도로이용, 시민의 위락 및 하천부지의 이용 등 하천부지의 다용도화에 대한 요구가 생겨났다(서울특별시, 1990, 54-55). 그리하여 하천공간개발이 진지하게 고려되어지기 시작하는 반면 도로확보에 대한 요구도 계속되어 교통이 혼잡한 곳의 하천복개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1970년대에 개발되기 시작한 한강 이남지역의 하천이 이 시기에 대대적으로 복개된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2) 서울시의 하천경관

(1) 하천형태의 변화

해방 전후에는 하천형태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일제시대 후반에 일본은 전쟁준비로 하수도사업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으며, 8.15해방 이후에는 사회적 혼란, 전쟁, 복구, 재건 등으로 하천형태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1950년대 후반 이후 적극적인 대규모 복개공사 및 직강공사로 하천형태가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환경정비와 도로확장을 내걸고 판자촌의 철거와 더불어 시작된 청계천의 복개 이후 하천복개는 도심지로부터 그 주변지역으로 확대되어 갔다. 즉 하천복개가 이루어지면 서울의 도로율[22]이 증대되어 교통량도 완화되며 시민의 위생보건상 향상이 크다(서울특별시 건설국 토목과, 1960, 65)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서울시내의 청계천을 위시한 주요하천은 도로의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모두 복개공사를 하여 과거의 도시경관을 찾아볼 수 없이 되었다. 이와 같이 도심지의 주요하천이 단순히 하수를 배제하기 위한 통로 역할만 하게 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의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를 더 확보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어느 면에서 보면 이들 하천이 오물의 투기, 수질 악화, 악취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하천경관을 몹시 해쳤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경관효과도 발휘하지 못함으로 취해진 조처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신상혁, 1977, 74).

이 시기 하천의 복개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1960년대에는 일제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은 도성내 청계천 및 그 지류, 도성주변의 하천복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즉 도성내의 중학천과 대학천, 그 주변 지역의 관동천[23], 욱천, 후암천[24], 숭인천[25], 신당천[26],성북천의 일부가 복개되었다. 이 시기 복개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살펴보면, 도심지역의 복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27], 이러한 도심지의 하천복개가 주로 교통의 편의를 위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중학천 복개공사가 완공되면 삼청동에서 광화문우체국 앞까지 직결되는 도로가 만들어져 교통에 많은 편의를 주게 될 것이다."(동아일보:1962.10.16)

1970년대에는 도성내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복개가 거의 완료되고, 1936년에 서울시역으로 편입된 지역까지 복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기에 복개된 하천은 욱천, 성북천, 봉원천, 월곡천, 전농천, 중곡천, 화계천 등이다.

"봉원천이 복개되면 용강로와 신촌 로타리가에 폭 20m의 간선도로가 생겨 두 지역 간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신촌 로타리의 교통부담을 줄여줄 것이다."(서울신문:1976.5.28)

"화계천이 복개되면 일대 환경개선은 물론 복개부분이 제방둑길과 합쳐 15~20m의 도로가 생겨남으로 교통소통도 돕게 될 것이다."(서울신문:1978.11.14)

한편 1970년대 후반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하천의 직강공사도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76년 불광천, 대방천직강공사와 함께 1976년에는 안양천의 직강공사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직강공사는 상습침수지역의 보호, 도로확보, 폐천부지의 택지화 등의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복개의 지리적 범위가 확대되어 당현천, 사당천, 봉천천, 시흥천 등도 복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92년 현재 중소하천중 복개가 요구되는 58㎞ 중 48㎞의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 및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지하철 역 주변에는 급증하는 주차수요를 하천을 복개하여 활용함으로써 하천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

다(서울특별시, 1993). 그리하여 1992년 현재 법정하천 전체연장 237,715m중 48,184m(복개율; 20.3%)가 복개되어 있으며, 이미 오래전 복개되어 법정하천에서 제외된 하천[28]을 생각한다면 복개된 하천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복개에 대한 懷疑 및 再考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29]

(2) 하천변 공간이용

가)농경지: 농업적 이용

서울시역으로 편입되기 전의 하천변 공간은 거의 농경지였다. 서울시역으로 편입된 이후에도 한강본류부유역 및 관내 중랑천, 안양천, 탄천, 양재천, 고덕천 등 支流유역은 농경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1960년에서 1970년 사이에 도심권 확장, 시가지화에 따라 택지, 공업용지로 전환하여 많은 경지감소율을 보인 이래 계속 그 면적은 감소하였다(정규영, 이인용, 1972, 91). 하천변의 농업적 이용의 감소를 서울시의 경지면적 변화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979년 봄부터 안양천, 중랑천, 청계천, 성북천, 양재천, 불광천, 도림천, 성북천 등 7개 하천부지에서의 채소류경작이 금지되었다. 그리고 한강 및 한강지류천변 고수부지 일대도 토양오염으로 지난 80년부터 농작물재배가 일체 금지되어왔다(한국일보, 1981. 12. 6).

그리하여 하천변 농경지의 감소원인은 첫째, 택지화, 공업단지화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구 둘째, 토양오염으로 인한 경작금지로 요약될 수 있다.

나)무허가 건물: 생활의 근거지로서 하천

해방 이후~1960년대에 급격한 도시인구증가와 더불어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운 대다수 서울이입인구가 도시빈민층으로 일시 적체되면서 하천변이나 산비탈에 대규모판자촌을 건립하였다. 더구나 광복과 6.25동란으로 인한 환도 직후에 폐허가 되다시피한 서울의 군데군데에 천막집이 생기기 시작할 때에 청계천 제방변은 최적의 천막촌 지역이었다. 두사람이 어깨를 부딪쳐 지나가는 통로를 제외하고는 빈틈없이 지어진 판잣집으로 인해 화재가 났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옥을 잃는 이재민이 되었다(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82, 146).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60년대의 무허가정착지 정책은 무단점유된 도심공간의 정비가 관건이었다. 특히 철거정비책과정에서 그 이주민의 도심재이입과 신규이농민의 정착으로 도심주변지역이나 시외곽의 고지대, 구릉지 또는 하천변에 무허가 정착지가 급증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대초 서울시 하천변 무허가 정착지는 주로 한강변, 중랑천, 면목천, 전농천, 성북천, 홍제천, 욱천 등 하천변 유휴공지에 집결되어 왔었다. 특히 하천변 제방상의 무허가 건축, 경작, 하상에서의 무단토석채취행위, 직접-간접적인 건설물 損壞행위의 자행은 일부시민의 절박한 영세성에 입각하고 있다. 비교적 한적한 위치에 있는 하천이야말로 細窮民의 생존정착지로서 매우 호적성을 갖는 대상이다.

그리하여 1971년 하천관련 무허가 건물수는 서울시 관내 전체 무허가 건물의13.8%를 점하고 있다. 이들은 생활거점으로서 하천을 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상토석의 채취를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어 하천피해는 더욱 심대하여진다(정규영, 이인용, 1972, 102). 그리하여 1960년대 도시정비정책의 결과 도시공간이 어느 정도 재편성되자 도시빈민의 도시주변 무단점유토지의 재개발이 촉발되어 이러한 무허가 건물의 정비계획을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철거작업을 진행해왔다.

표 4. 무허가 불량주택 철거현황

단위: 棟

	전 체	하천변
1975	20,039	9,222(*46.0%)
1976	18,828	5,602(29.8%)
1977	14,919	2,518(16.9%)
1978	12,992	1,339(10.3%)
1979	3,618	179(4.9%)

* 하천변 무허가건물철거/ 전체무허가 건물철거
출처: 장세훈, 1989

"서울시의 중랑천변 무허건물 철거계획은 무허가 건물이 중랑천 둑 양변에 군집,오물과 하수가 중랑천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둑이 갈라지고 내려앉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철거되는 중랑천변 무허가건물에 살고 있는 가구수는 2천5백여 가구로 주민수는 1만여명이나 된다. 서울시는 이 지역 무허가건물이 철거된 다음 둑양편에 8m 도로를 개설하고 경사지에는 가로수 잔디 등을 심을 예정..." (동아일보:1974.10.5)

하천변 무허가 건물의 철거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5. 서울시의 하천 경관 변화

시 기	배 경	하 천 경 관
일 제 시 대	ㅇ 도로개수 및 신설 ㅇ 하수도 공사	ㅇ 중학천,대학천,필동천,장충천 등을 제외한 도성내의 모든 하천이 복개 ㅇ 도성 밖의 하천변은 대부분 농경지로 이용
해방이후~1970년	ㅇ 인구집중 ㅇ 급격한 도시화 ㅇ 개발의 시대→도로확장 및 환경정비(토지이용의 극대화)	ㅇ 도성내의 모든 하천과 그 주변의 욱천,신당천,성북천의 일부가 복개 ㅇ 도심 주변의 하천변 무허가 건물 증가
~1980년		ㅇ 욱천,성북천,봉원천,월곡천,전농천,중곡천,화계천,정릉천 등이 복개 ㅇ 하천변 무허가 건물의 확대, 정리
1980년 이후	ㅇ 자연공간에 대한 요구	ㅇ 시흥천,사당천,봉천천 등 한강 이남의 하천 복개 ㅇ 하천공간개발

이로써 하천변무허가건물의 대대적인 철거작업은 1970년대 말까지 거의 일단락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휴식공간: 본격적인 하천공간개발

하천공간개발은 하천부지 등 하천 주위공간을 도로, 주차장,공원 같은 공공시설로 개발하는 것이다. 즉 이수 및 치수관리의 허용범위내에서 주로 도시 하천변의 고수부지(홍수터)를 경기장, 운동장, 자연 학습장 같은 시민들의 휴식처로 개발하는 것이다(건설부, 1991, 54).

1970년대 후반 이후 하천공간의 이용 특히 고수부지의 위락공간으로서의 이용, 도시내의 하천환경이 60년대의 공업화에 따른 고도의 경제성장과 급격한 도시화 전개과정에서 극도로 악화되었다는 전제하에 하천을 도시생활공간의 가장 중요한 장으로 만들기 위한 도시의 하천미화와 하천공간이용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에서 하천공간개발은 1982~1986년에 수행된 한강종합개발사업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건설부, 1991, 64). 특히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무허가 건물의 철거가 거의 완료됨에 따라 하천공간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중랑천이 시민의 휴식처인 하천공원으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심한 수질오염으로 시민으로부터 외면받아온 중랑천에 산책로와 수림대,꽃길 등을 조성해 하천공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내년부터 시민들에게 공개될 이 하천공원계획에 따르면 ▲제방에 수림대와 산책로를 만들고 ▲고수부지에는 잔디밭과 간이휴식시설,체육시설등을 갖추며 ▲하상은 계단식으로 깊이 파 물의 흐름을 빠르게 해 수질오염을 줄인다는 것이다..."(서울신문: 1983. 7. 28)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하천에 대해 친근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복개된 12개 하천을 제외한 23개 하천 1백49㎞ 구간에 1997년까지 시민휴식공간을 만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리하여 시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3월말 안양천 고수부지에 시민휴식공간 조성공사에 착수했다."(세계일보: 1994. 3. 2)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서울시의 하천복개과정을 <표 5>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Ⅳ. 하천경관의 함의

1. 하천경관의 변화요인

경관이 변화하는 요인으로 새로운 기술의 도입, 도시화와 관련된 사회적·경제적 조건의 변화, 사람들의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서울시 하천경관의 변화도 이러한 요인들과 관련이 있다.

첫째,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경관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서울시의 하천경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근대적인 하수시설인 暗渠의 도입은 하천이 지상에서 사라지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歐美에서 근대적 하수도의 발달은 18세기 산업혁명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도시의 인구 집중, 분뇨처리의 곤란과 汚水처리의 불완전에 기인하는 전염병의 발생은 暗渠排水路가 도시의 기본시설로 불가결하다는 시민의식을 提高시켰으며, 자치권한의 신장으로 도시발생과 동시에 시설되어 왔다[30](한국토목학회, 1973, 478).

우리나라의 경우, 암거는 舊韓末 도입되어 이후 서울 전지역으로 확대되면서 하천형태를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이미 살펴보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성부시대 초기에 하수배제방식[31]이 합류식으로 채택된 이래 1970년대에 들어와서야 분류식하수도에

표 6. 법정하천의 변화

년 도	1958	1966	1971	1974	1992
법정하천의 수	19(25)	35(37)	38(40)	36(38)	35
총 연 장(Km)	157.6	223.9	248.5	240.2	237.7
기 타			*법정하천 신규지정: 신당천, 대동천, 시흥천	*법정하천 삭제: 신당천, 중곡천	법정하천 삭제: 욱천

출처: 각 년도「시정개요」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1989년에도 분류식관거는 전체의 8.1%에 불과하다(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991, 195-200). 그리하여 우리나라 하천형태의 변화는 근대적 하수시설인 暗渠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둘째, 사회적·경제적 조건의 변화는 하천경관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서울시의 하천경관은 1900년대 전반기에 근대적 도시시설 즉 도로개수, 하수도공사 등에 의해 변형되었는데, 1906년~1917년의 하천형태변화는 도로개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1918년~1940년대까지는 근대적 하수도공사와 함께 하천의 형태가 본격적으로 변화되었다. 이 시기의 암거공사는 주로 배수, 위생상의 이유에서였다. 1900년대 후반기에는 토지이용과 관련된 경제적 이유 즉 교통난 해소, 토지이용증대, 도시미화사업 등의 이유로 하천이 적극적으로 변형되었는데, 1960년대 이후에 하수의 유수소통을 원활히 하고, 복개도로의 활용으로 교통란을 해소하고 환경개선 및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특히 복개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천의 복개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또한 1970년대 이후 활발히 이루어진 하천의 직강공사도 토지이용의 증대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회적·경제적 요구는 그 시대의 도시화 과정과 관련된다. 급격한 도시화현상은 기존 도심부의 과밀화와 외연부는 시가지의 평면적 확산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도시구조를 만들며, 하천경관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제 3 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①기존 시가지의 과밀화→하천이 복개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나아가 더 효율적인 토지이용의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성내 지역과 1913년에 市域에 편입된 지역이 이에 해당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청계천을 들 수가 있다.

②시가지의 평면적 확산 즉 행정구역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지역이 시역에 편입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가지화→하천은 지상에 존재하고, 하천변의 공간이용이 달라진다. 즉 농경지로 이용되던 하천변이 무허가 건물이나 하천공간시설로 이용된다. 특히 1960년대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강남지역의 경우, 1980년대 이후부터 규모가 작은 하천은 복개되어 도로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나[32] 복개되지 않은 경우 하천변 공간(고수부지)을 주차장이나 휴식공간으로, 제방은 도로로 이용하기도 한다.

그 외 성북천과 정릉천 등과 같이 도심주변의 미처 복개되지 못한 하천의 경우 고제방, 콘크리트벽으로 단절 또는 방치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서 도시의 자연환경 중의 하나인 하천이 도시화와 관련하여 사회적·경제적 구조의 요구에 의해 변형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시대의 그 장소에 대한 요구에 의해 변해왔기 때문에 현재 서울내의 하천경관이 위와 같이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도성내 지역은 조선시대부터 하천에 대한 관리 및 공사가 이루어져 오다가 일제에 의해 복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지역으로 시가지화가 일찍부터 이루어져 과밀화된 지역이며, 고제방·콘크리트벽으로 단절 또는 방치되어 있는 하천은 주로 일제 후반기에 서울시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 일제 후반기부터 1970년대까지 亂立해 있다 철거되면서 격리된 채 방치되어 있다. 새롭게 시역에 편입된 지역의 경우, 거의 자연상태의 하천으로서 농업적으로 이용되다가 1960년대 후반부터 하천변에 무허가 건물이 난립했던 지역이나 철거되어 현재는 하천공원 등으로 개발 중이다. 셋째, 이러한 요인들과 더불어 사람들의 하천에 대한 태도의 변화도 하천경관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것은 지금부터 살펴볼 하천의 사회적인 기능변화를 통한 인간-하천 관계의 변화에서 나타난다.

이상과 같은 요인들은 하천경관을 변화시키는데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 문화경관으로서 하천경관은 인간과 하천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2. 하천의 사회적 기능변화: 인간-하천 관계의 변화

하천의 주요기능은 利水기능, 治水기능, 環境기능[33] 등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하천 기능을 물리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홍수 또는 평수의 유하, 토사의 운반은 물리적인 것이 되며, 범람에 의한 피해, 농업용수의 이용은 사회적인 것이 된다. 이 때 하천의 사회적 기능은 곧 인간이 하천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서울시 하천경관은 100년이 되지 않은 시간동안 예전의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겪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可視的인 경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형태와 더불어 하천의 사회적인 기능 또한 변해왔는데, 이를 통해 하천-인간관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문화경관에서 형태(form)와 기능(function)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4개의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Hong-Key Yoon, 1986, 93-94).

첫째, 형태와 기능이 변하지 않는다.

둘째, 형태는 변하지 않는데, 기능이 변한다.

셋째, 형태와 기능이 모두 변한다.

넷째, 형태는 변하는데, 기능은 변하지 않는다.

서울시의 경우 하천형태는 복개가 되어 지상에서 사라진 하천과 아직도 지상에 존재하는 하천으로 단순화시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복개된 하천의 경우, 그 형태와 더불어 기능도 변화한다. 이수와 환경기능은 잃고, 홍수로 인한 피해 예방기능인 치수기능만을 보유하고 있다가 마침내 하수도로 바뀌어 법정하천에서도 제외된다(표 6).[34]

법정하천은 대체로 행정구역의 확대에 의해 증가한다.[35] 한편 도시내에서 시가지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 중에서도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요구되는 지역의 하천은 복개되어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경우 법정하천에서 제외된다.[36]

그리하여 이는 형태와 기능과의 관계에 있어 형태와 기능이 모두 변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지상에 존재하는 하천의 경우, 이수와 환경기

사진 1. 1900년대 초의 청계천과 그 주변

사진 2. 1950년대 말의 청계천과 그 주변

사진 3. 1960년대 말의 청계천과 그 주변

능이 약화됨에 따라 방치되어 있다가 1980년대 이후 환경기능을 강조하는 하천공간의 개발의 강조로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는 형태와 기능과의 관계에 있어 형태는 변하지 않는데, 기능이 변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첫째의 경우 하천이 하수도로 변해 인간-하천과의 관계가 완전히 없어졌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연에 대한 인간을 우월성으로 이어지는 사고를 발견할 수 있다. 둘째의 경우 환경기능이 약화된 하천이 방치되거나, 무허가 건물의 용도로 사용되어 오다가 자연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로 인해 하천공간을 개발하여 다시 예전의 하천기능을 회복함으써 인간-하천과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있다.

V. 사례: 淸溪川 景觀의 變遷

1. 朝鮮시대의 淸溪川

한성은 도성의 근간을 이룬 4개의 산을 중심으로 높고 낮은 산들로 둘러싸인 분지지형이다. 이들 산에서부터 흐르는 물은 도성 한복판으로 모여 개울을 형성하여 동쪽으로 흐른다. 이 개울은 태조때는 川渠, 태종 12년(1412년)부터 開川으로 불리웠다. 태종이 한성으로 再遷都했을 당시 천거는 河床이 얕고 바르지 못했다. 그리하여 태종 6년(1406년)에 실시한 掘鑿공사는 하천의 하상을 고루어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였고, 천거 양편에 뚝을 쌓고 나무를 심어 한성의 배수시설을 정비하였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이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매년 홍수가 발생하여 피해가 증가되었다(건설부 국립지리원, 1984, 167-168). 그리하여 태종 12년(1412년) 三南지방의 장정 5만 여명이 동원되어 제방을 쌓고 다리를 놓은 대역사를 벌인 이후 수십차례에 걸쳐 바닥을 깍아왔다. 이러한 청계천 개수공사는 下水處理와 浸水豫防을 목적으로 浚渫과 護岸공사에 중점을 두었다.[37]

2. 日帝시대의 淸溪川

1) 청계천의 형태변화

일제 침략 이후 청계천과 그 지류의 근대 改修작업이 시작되었다.

"五間水부근의 청계천을 비롯하여 시내의 개천을 수축중이다...공사의 범위는 축대를 수축하고, 넓이가 좁은 곳을 넓히고, 석자 내지 넉자 깊이로 판다... (동아일보: 1921. 9. 21)

"경성부에서는 大正7년(1918)~大正13년(1924) 일곱해 동안의 계속사업으로 경성시내 청계천을 비롯하여 시내의 개천을 수축하는 중이다."(동아일보: 1921. 9. 22)

한편 도시의 미관과 위생상의 이유[38]로 1925년~1928년에 청계천의 지류인 신교동~도렴동까지의 1,389m 하천[39]을 복개(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81, 419)하는 것과 더불어 청계천 본류의 복개계획이 세워졌다. 이 때 경성부의 청계천 전면 복개계획을 반대하는 소리가 높았지만(주윤, 1987, 64) 廣橋 서쪽 일부의 복개가 이루어졌다.

"오백만원 예산으로 청계천을 덮는다. 암거만들고 콘크리트 포장, 금후 문제는 재정난..."(동아일보: 1935. 5. 30)

"청계천 암거시설 명년(1937년)은 십만원으로 착수, 광화문편(북청교)에서 무교정까지..."(동아일보: 1936. 8. 6)

조선시대부터 改修와 浚渫사업이 계속되어왔던 청계천은 일제시대에 들어와서도 그 지류와 더불어 개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복개계획이 세워져 일부구간이 복개되었다.

2) 청계천변의 공간이용

도성내의 청계천변은 조선시대에 이미 시가지화가 이루어져 상가와 서민들의 거주지로 이용되어졌으며(강대현, 1980, 50), 시가지화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도성 밖은 1910~1920년대에도 자연그대로의 하천으로 그 주변이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음을 지형도[4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청계천 하류는 농경지로 이용되다 1930년대 일제의 소위 農工併進정책으로 공업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용산의 욱천하류, 영등포 지역과 더불어 공업지구가 형성되었다(강대현, 1980, 66).

그리고 1900년대 전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1>의 청계천변 모습은 청계천과 그 주변이 그 곳 사람들의 생활터전이었음을 확인시켜준다.[41]

본고 제3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청계천의 다리밑에는 조선시대부터 거지떼의 움막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렇듯 하천변을 근거지로 하는 무허가건물의 형태가 災害와 위생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제침략기

사진 4. 1990년대의 청계천 상류: 청계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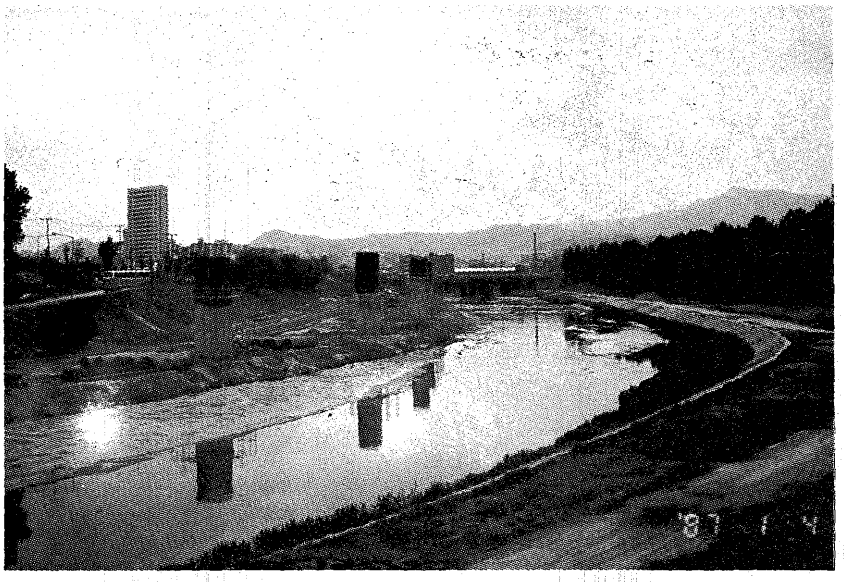


사진 5. 1990년대의 청계천 하류

인 1920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통계상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이 시기 도시빈민 형성의 단면을 볼 수 있다.

3. 해방 이후의 청계천

1) 청계천의 형태변화

해방후 급격히 증가되는 인구, 교통량과 아울러 수도의 미관상의 이유로 광교~동대문 오간수교까지 1차 복개가 이루어졌고, 이후 1964년에서 1970년까지 계속된 복개로 제1,2청계교까지 모두 덮였다. 이러한 복개공사가 완성됨으로써 첫째, 도시의 미관이 일신되었고, 둘째, 복개도로가 중요간선도로화하여 시내 교통량완화에 큰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셋째, 복개도로연변에 상가건물이 건립되어 상업지대로 발전하였다(서울특별시, 1986, 26). 한편 沿邊 불량지구의 토지이용가치를 극대화시킨 것은 우리나라 하수도사에 일대 전환을 이룬 것이며, 청계천 복개공사를 계기로 시내 중심하천까지 복개공사붐을 유발시켰다(대한토목학회, 1973, 476). 그리하여 청계천의 복개는 개발의 시대, 급격한 도시화의 시대로 불리던 1960년대, 특히 도심공간을 정비하고자 하는 시도의 시발점이자 그 마무리이기도

표 7. 청계천 복개과정

구간	학천 ~광교	~오간수교	~제2 청계교	~마장동
시기	일제 침략기	1958년 ~1961년	1967년 ~1970년	1971년 ~1979년
하폭	12~14m	16~50m	50~60m	
길이	약 400m	2,380m	1,280m	

했던 일이었다.

그리고 복개가 되면서 청계천로[43]와 청계고가로[44]가 생겼다. 1967년 착공되어 2년만에 3.1빌딩에서 신설동까지 3,950m의 고가도로가 완성되었고, 이후 마장동까지 완공을 보았다. 특히 청계고가로는 사업초기에 도시계획전문가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도심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의 기초도 모르는 무모한 짓으로 계획 당시부터 각계의 반대여론이 높았다. 차량대수 3만대도 안되는 상황에서 교통수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차량을 도심으로 불러들여 교통체증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 김포공항에 내린 외국인들이 가장 빠른 시간에 워커힐까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계고가도로를 놓는다는 발상이었다. 그것은 군사정부 아래서나 가능한 전시행정의 표본..."(동아일보:1993.9.2)[45]

한편 청계천로는 교통량이 가장 높은 도로[46] 중의 하나가 되었다.(건설부 국립지리원,1984:273)

한편 복개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형태와 더불어 기능이 변했다. 이수와 환경기능은 잃고, 홍수로 인한 피해 예방기능인 치수기능만을 보유하고 있다가 마침내 하천의 기능을 상실하고 하수도로 변해가는 과정을 법정하천 지정구간의 변화를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다.

표 8. 법정하천 지정구간(청계천)

단위: km

	1962	1966	1982
지방하천	5.8 (종로 6가 ~ 중랑천)	4.95 (오간수교 ~ 중랑천)	3.67 (신설동 49번지 ~ 중랑천)
준용하천	2.8 (무교동 ~ 종로 6가)		

그리하여 이는 형태와 기능과의 관계에 있어 형태와 기능이 모두 변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하류는 고제방과 콘크리트 벽에 격리, 방치되어 있다가 최근 고수부지에 내부순환도로를 건설하고, 휴식공간으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즉 이수와 환경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방치되어 있다가 1980년대 이후 환경기능을 강조하는 하천공간의 개발의 강조로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는 형태와 기능과의 관계에 있어 형태는 변하지 않는데, 기능이 변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지금 청계천로와 청계 고가도로가 있는 곳이 예전에 하천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미 예전에 존재하던 인간-하천관계는 사라진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시대에는 도성내의 모든 하천들을 모아 도성한 복판을 가로질러 도성밖으로 흘러보내는 명당수이자 大幹線으로서 오늘날은 도심지의 排水幹線이자 주요간선도로로서의 역할을 지니고 있는 청계천은 서울의 다른 하천에 앞서 그 모습을 변화시켜왔다.

2) 청계천변의 공간이용

6.25전쟁 이후부터 무허가 판잣집이 난립하여 복개 당시 청계천변과 다리 밑에는 바라크(빠락,병영)이라고 불린 판잣집, 토막집 등 무허가 불량주택 1천여 가구이상이 들어서 있었고 오염은 극에 달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복개와 함께 이들은 철거되어 서울시 인근의 불량주거지 확산을 초래했다.

"개천주위에 도시계획대로 제대로 자리잡은 주택이나 상점은 50-60%까지 상승할 값이 오르리라는 즐거움, 반면 강제철거를 당하는 바라크..."(동아일보: 1958. 11. 3)

"청계천 암거작업이 주위에 있는 무허가 판잣집 때문에 수개월간 중단..."(동아일보: 1960. 10. 8)

복개 이후 1969년 종로에서 청계천 을지로를 지나 퇴계로 대한극장까지 남북으로 1.3㎞가 이어지는 동양 최대의 상가아파트 세운상가가 탄생(종로,청계,을지로 4가)하면서 청계천변은 상가지역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당시에 세운상가는 청계고가도로와 더불어 도심재개발의 '작품'으로 꼽혔다. 그러나 지금은 서울도심의 흉물이 되어 서울시의 골치거리가 되고 있다(동아일보: 1993. 9. 2).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 청계천과 그 주변은 <표 8>과 같이 이용되고 있다.

표 9. 청계천과 그 주변의 공간이용(사진 참고)

상 류	중 류	하 류
도심간선도로, 그 주변은 고층 건물지대 (중심업무지구)	고가도로, 기계상가의 집적	미복개구간으로 콘크리트 벽으로 단절, 고수부지를 따라 내부순환도로가 건설 중이다. 그 주변은 2호선 지하철도: 용답,기지(신답)역

그리하여 조선시대부터 청계천의 개수가 이루어져 왔으나 청계천의 형태가 지상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제 2 기 하수도공사(1925~1931) 때 청계천의 지류인 청운천이 암거로 바뀌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30년대에 청계천의 복개계획과 더불어 하천이 지상에서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새로운 기술인 암거의 도입은 청계천 경관 큰 변화를 가져왔다.

현재 청계천은 지역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상류지역은 기존 시가지의 과밀화가 이루어진 곳으로 하천이 복개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나아가 더 효율적인 토지이용의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는 광교-마장교간 5.4㎞의 청계천 복개구간 내 하천 양쪽 고수부지를 따라 도로를 신설하고자 타당성조사를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하였다. 또한 마장동에서 중랑천이 합쳐지는 청계천 하류 미복개구간 2.4㎞에는 양쪽 고수부지를 따라 도로를 신설, 현재 공사중인 내부순환도로나 기존의 동부간선도로와 연결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조선일보:1994.4.9)

Ⅵ. 맺음말: 요약 및 결론

서울의 中小河川들을 대상으로, 문화경관의 입장에서 하천경관의 변천에 대해 살펴보고, 하천경관의 변화에 관련된 요인, 하천기능의 변화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서울에 관련된 각종 문헌과 지도, 신문기사 등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해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선 서울시 하천경관의 변화모습을 도시화와 관련된 사회적·경제적 배경과 함께 살펴보는 과정에서,

첫째, 조선시대에는 하수처리와 침수예방 즉 治水의 목적으로 개천공사와 준천공사를 실시하였으나 하천형태에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근대적 하수시설인 암거가 도입되어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하천형태를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둘째, 하천형태의 변화에 있어서는, 일제시대 초기에 근대적인 도로 개수와 함께 지상에서 하천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다가 1918년부터 실시된 근대적인 하수도공사와 함께 도성내의 하천은 본격적으로 지상에서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1958년 청계천의 복개 이후 도로확장과 환경정비즉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내걸고 서울 전체로 복개가 확대되어 지상의 많은 하천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복개된 하천은 주로 도로, 주차장 등의 도시공간시설로 이용되어졌다.

셋째, 하천변의 공간이용은 하천형태의 변화와 더불어 변화해왔는데, 하천변은 오래전부터 1970년대 말 토양오염으로 인한 경작금지 전까지, 사회적·경제적 요구때문에 점점 감소되어왔지만 농경지로 이용되어왔다. 하천변 무허가 건물은 서울로의 인구집중 등의 사회적 배경하에 도심주변의 하천을 중심으로 1960년대

와 1970년에 이르면서 증가되고, 공간적으로도 확대되어 오다가 1970년대 말 대대적인 철거 이후 거의 정리되었다. 1980년대 이후 하천 주위공간을 도로, 주차장, 공원 같은 公共시설로 개발하고자 하는 하천공간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지상하천의 경우 장차 휴식공간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넷째, 하천경관에 변화를 준 요인으로 새로운 기술의 도입, 도시화와 관련된 사회적·경제적 요구의 변화, 사람들의 하천에 대한 태도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하천과 이러한 요인은 상호작용하여 '문화경관'으로서의 '하천경관'을 형성한다.

다섯째, 하천의 형태와 더불어 사회적인 기능도 변화했는데, 서울시 하천은 형태와 기능이 모두 변하는 경우와 형태는 변하지 않는데, 기능이 변하는 경우가 있었다.

여섯째, 조선시대에는 도성내의 모든 하천들을 모아 도성 한 복판을 가로질러 도성밖으로 흘러 보내는 명당수이자 大幹線으로서 오늘날은 도심지의 排水幹線이자 주요간선도로로서의 역할을 지니고 있는 청계천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사회적·경제적 요구에 의해 가장 극심한 변화를 겪어왔다.

청계천은 일제시대에 복개가 시작된 이후, 1960년을 전후로 하여 지상에서 사라지고 그 위에 고가도로가 가설되고 沿邊에는 고층빌딩이 들어섰다. 그리고 빗물과 하수도물만이 흐르는 하수관로로 전락했다. 도심지의 주요간선도로가 된 청계천로와 청계고가도로를 달리며 이곳이 하천의 이름처럼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었던 곳임을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이미 예전에 존재하던 인간-하천관계는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청계천 하류지역도 심각한 오염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생활과는 심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고제방에 의해 단절되어 있다. 즉 많은 사람들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 현재의 이러한 청계천의 모습속에서 우리는 서울이라는 도시속을 흐르고 있는 청계천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도시속에 살고 있는 사람과 하천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는 강이 이제 더 이상 개발의 대상만은 아니라는 인식하에 강 개발의 유물들을 하나하나 헐어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한 때의 편의로 하천을 덮고 있지는 않은지.

본 연구는 각 하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내용의 논리적 연결부분에 허술한 면이 많다. 또한 문화경관의 연구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찰력을 지닌 해석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경관연구에서 비판되어지곤 하는 가시적인 경관의 서술에 그친 것 같다.

< 註 >

1) 경관지리학의 전통은 독일의 지리학자들이 지리학을 '경관과학'으로 규정했던 19세기 말까지 소급할 수 있다.
2) 그리하여 Roymann(1973)은 하천경관이 인류의 귀중한 문화적·역사적 유산이라고 했다.
3) 한강을 제외한 법정하천
4) 1961년에 제정
5) 단 도성내의 하천은 예외로 한다.
6) 서울시,1992,서울시수방시설현황도; 국립지리원, 1992, 1:5만지형도를 참고하여 작성
7) 上部를 개방하지 않은 水路
8) 건설부 훈령 제 205 호(1979),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 93 조'
"복개된 하천은 도로,광장,주차장,녹지 등 도시공간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9) 「동국여지비고」에 의하면, 도성내의 하천규모는 청계천 본류가 10보내지 30보로 12.5m~37.5m이며, 청운천과 대학천이 10보정도로 12.5m이다. 1911년 1:5천 지도에서 청운천,중학천, 대학천 등이 약 10m정도로 나타나며, 나머지는 하폭 10m이하의 소하천들이다.
10) 支流細川의 開鑿과 水門改修
11) 경국대전, 工典 [橋路]
"도성안의 도로, 溝渠, 교량은 본조와 한성부에서 자세히 살펴 수리한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국역경국대전」)
12) 고대나 중세도시에서는 하수도로서 자연하계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약간의 수정을 가하는 정도이다.
13) 한글학회, 1966, 「한국지명총람1(서울편)」에 의하면, "진고개(泥峴,지금의 충무로 2가): 1906년에 8척 가량 파내어 길을 닦고, 높이 5척이나 되는 모기둥꼴의 수멍을 묻었는데, 이것이 서울 시내의 수멍도랑(暗渠)의 시초가 되었다."
14) 도성안에 있어서의 본격적인 도로개수는 泥見(진고개)을 중심으로 일본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15)조선총독부 내무국 토목과 발간

16)유경희(1986)의 '개천공사구간도'와 「漢京識略」의 '橋梁'편을 참고로 작성

17)개항 이후 舊한국정부시대로부터 일제시대 전반기까지 현대적 개념의 도시계획은 없었으며, 市街地整理라는 이름으로 도로의 확장 및 정비를 시도하는데 그치고 있다.

18)1912년~1917년 → 제1기 도로개수공사

19)1918,京城府管內地圖,1:6천

20)1960년대에는 도시계획에 저촉, 청계천 복개, 재해빈발 등의 이유로 도심지역의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었다. 이때의 철거이주민대책은 국공유지분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들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토지용도가 공원 임야지역(54%),하천제방(18%) 등으로 비거주용 토지였고 정작 주거지역은 20%에 불과하였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서울시 인근에 불량주거지 확산을 초래하였다(장세훈,1987:46).

21)災害의 위험

22)도로면적과 도시면적의 비

23)서대문구 독립문근처

24)욱천의 지류

25)종로구 숭인동: 1913년 서울시역

26)중구 신당동: 1936년 편입

27)1965년 발표된 시정 10개년 계획안중 복개에 관한 내용

28)신당천,중곡천,욱천,청계천 일부구간 등

29)복개하천의 문제점:

ㅇ 기능적 측면- 도시하천은 일반적으로 이수기능이 치수기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하천이 복개되면 치수기능은 보존된다 하더라도 환경기능은 즉시로 손실되어 버린다. 이는 도시민이 좀 더 쾌적한 생활환경을 요구하는 환경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은 물론 도시경관을 저해한다.

ㅇ 수질적 측면- 일광과 바람을 차단하여 하천의 자정능력을 상실시킨다. 유기물질이 염기성 세균에 의해 부패되어 가스가 발생한다. 이 가스 중에는 가연성 가스가 포함되어 있다.

그 외 복개는 하천의 유지 관리를 어렵게 한다.

30)19세기말에 들어와서는 산업발달의 부산물인 다양한 廢水量의 급증으로 放流水가 公共用 水域을 점차 오염시켜 수질보전에 큰 위험을 느끼게 되었음으로 필연적으로 汚濁방지기능을 갖는 처리시설의 건설시대가 도래하였다(下水暗渠시대→하수종말처리장시대).

31)*합류식(combined system): 汚水 또는 雨水를 동일한 하수관거로 배제하는 방법

*분류식(separate system): 汚水 또는 雨水를 다른 하수관거로 배제하는 방법

32)시흥천, 사당천, 봉천천

33)자연보전, 친수(하천을 보고 느낌으로써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주는 기능), 공간(공간이용, 피난 및 방재공간, 지리분할기능) 기능

34)이수와 환경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복개되는 경우도 있다.

35)1966년의 경우

36)신당천,중곡천(1974년),욱천(1982년),청계천 일부

37)流路變更공사도 아울러 실시했음이 확실하다. 그것은 영조대의 석축공사 실시전의 제작으로 인정되는 都城圖에 청계천이 自然地勢에 따라 다소의 굴곡이 있으나 본 석축공사후의 각종 圖面에는 直流로 표시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호안석축공사와 더불어 유로를 변경시켰음이 확실한 것이다(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1965, 25).

38)"청계천을 덮어버린다는 말이 있지 않어? 위생에 나쁘다든가...../ 그것 다 괜한 소리.....덮긴, 말이 그렇지, 이 넓은 개천을 그래 무슨 수로 덮는단 말이유?/ 아, 관가에서 하는 일이, 덮으러들면야, 노들장은 못덮어?.....조만간 덮긴 덮을 모양이야, 말이 자꾸 떠도는 게....."(박태원, 1936, 144-145)

39)청운천

40)1915년, 1:5만 지형도; 1921년, 경성, 1:1만 지형도에서 확인

41)이러한 사진과 더불어 문학작품속에서 청계천의 단편적인 모습이나마 찾아볼 수 있다.

"다리밑에 우글거리는 거지떼..."(박태원, 1936, 86)

"...개천속 빨래터로 눈을 주었다.한 이십명이나 모여든 빨래꾼들..." (上揭書,47)

42)1927년에 청계천 제방에 89戶의 토막이 있었다.

43)동아일보사에서 신답국민학교까지의 가로명으로 폭 50m, 연장 6000m의 길로 종로,을지로,퇴계로,율곡로와 같이 서울의 동부와 서부를 잇는 역할(서울특별시, 1986, 24-27)

44) 충무로 2가 세종호텔 앞에서 용두동 34번지 마장동 고가종점까지로 폭16m, 연장 5,650m

45)당시의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으로 있다 고가도로건설에 대한 반대의견을 공개적으로 내고 그만둔 韓鼎燮씨의 말

46)청계천 대로상의 교통량 특히 자동차의 이용도는 을지로통 및 종로통보다 더욱 높아졌다.

<參考文獻>

許英桓 著,「서울地圖」, 1994, 범우사.

1911, 京城部市街圖, 1:5천.

1918, 京城府管內地圖, 1:6천.

1921, 1:1만 지형도.

1947, 서울特別市精圖, 1:6천.

1992, 지형도, 1:2만 5천, 1:5만.

서울시, 1992, 서울시수방시설현황도.

경성부, 1938, 京城府土木事業概要.

강대현, 1980, 서울의 도시화에 의한 지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교학사.

건설부, 1991, 한국의 하천.

건설부 국립지리원, 1984, 한국지지:지방편 I.

건설부 수자원국, 1992, 하천관련법령연혁집.

국토개발연구원, 1991, 도시하천의 치수대책 및 관리방안 연구.

권태익 譯, 유본예 箸, 1981, 漢京識略, 탐구당

김 인, 1984, 도시지리학:이론과 실제, 법문사

남영우, 1989, "일제하 경성부 토막촌 형성," 문화역사지리, 창간호.

대한토목학회, 1973, 한국토목사.

박태원, 1994, 川邊風景, 깊은샘(1936).

변문기, 1986, 한국도시내 하천의 경관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특별시, 1962~1994, 시정개요.

_____, 1986, 서울의 가로명연혁.

_____,건설국 토목과, 1960, "청계천 暗渠공사보고," 대한토목학회지, 8권 2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1965, 서울도시계획.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78~1982, 서울육백년사 I ~V.

_____, 1982~1992, 시사자료 I ~VII(1948~1988).

손정목, 1976, 조선시대도시사회연구, 일지사.

_____, 1988, 현대도시의 발자취, 일지사.

신상혁, 1976, 도시하천고수부지이용에 관한 환경조경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논문

_____, 1977, "도시하천의 경관적 처리," 도시문제, 12-6.

유경희, 1986, 서울시의 하계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규인, 1989, 도시 무허가정착지의 유형별 특성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평재, 1974, 한강변도로기능과 토지이용에 따른 경관처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혜은, 1992, "서울강동지역의 경관변천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제4호, 205-220.

장세훈, 1987, 도시 무허가 정착지 철거정비정책에 관한 일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규영, 이인용, 1972, "서울특별시 관내하천현황과 장래개수계획 1972," 대한토목학회지, 20-2, 90-107.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991, 한국근세과학기술 100년사 조사연구: 토목공학, 한국과학재단.

한국토목학회, 1973, 한국토목사.

한글학회, 1966, 한국지명총람1(서울편).

Detwyler, T.R. & Marcus, M.G., 1972, *Urbanization & Environment*, Duxbury Press.

Hartshorn, T.A., 1992, *Interpreting the city: An Urban Geography*, 2nd Edition, John Wiley &Sons, Inc.

Hong-Key Yoon, 1986, *Maori Mind, Maori Land*, Peterlang

Gregory, K.J., 1985, "The Impact of river channelization,"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151, 53-74.

Roy Mann, 1973, *Rivers in the city*, Praeger Publishers.

A Study on the Change through Time of River Landscape in the City of Seoul

Hye-Jeong Lho*

Summary

The river of city has abused because most inexpensively sited for structures and uses of all kinds. The river has lost the diversity of old times and isolated from the life of city people by uniform high-bank construction. Many rivers of Seoul have covered and lost function of the river.

In this condition, will be meaning work to investigate formation & meaning existed in the change of river landscape as spatial presentation. The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nge of river landscape, factor related to change and the change of the social function of river. The major findings are summed up into the followings.

For the facility of study, river landscape consists of the form(morphology)of river & riverside space.

First, the Choson dynasty(A.D 1392~1910) enforced kennel construction and dredging construction for the purpose of function as water control, but river morphology nearly undergo no change. But modern sewage facilities, that is, culvert were introduced, then spread, and changed river morphology.

Second, in the form of river, open stream enclosed with modern road repairing & building early in the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Then River on a full scale disappeared on the ground with the start of modern sewerage works in 1918. In 1958, Cheong Gye Cheon enclosed. After this, enclosed stream spread on the whole, many open streams disappeared for the purpose of road extension and environment improvement, that is, maximization of land use. And enclosed stream has utilized urban space facility, such as road, parking zone etc.

Third, The use of riverside space has changed with river form. Though has decreased because of social · economic demand, riverside utilized as farmland from old times to 1970s, that is, cultivation prohibition resulting from soil pollution. Riverside unlicensed building increased with priority given to stream of the periphery of downtown, spatially spreaded specially 1960~1970s, then in the latter of the 1970s, nearly removed. In the 1980s, riverine-space development was getting popular, that is, direct use of the land area around the river, such as flood-plains and levees, for sport parks of playgrounds. And open stream is expected to develop as a space of recreation.

Fourth, The factor of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y, that is, culvert, the change of social · economic demand related to the urbanization, of human behaviors to the river changed river landscape. Then, river & these factors interact and form 'river landscape' as 'cultural landscape'

Fifth, the social function of river(Water use, Water control, environment) has changed with form of river. There are two types in the river landscape of Seoul. ①When form changes static, function changes the same ②When form stays static, function stays the changes.

* Graduate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Sixth, in the Choson dynasty, Cheong Gye Cheon was Myeongdang water & a main sewer. In the present time, Cheong Gye Cheon play an important role as the arterial drainage of downtown and major principal road. This Cheong Gye Cheon has been severely changed by social · economic demand of the city.

Key Words : cultural landscape, river landscape, form(morphology) of river, riverine-space, culvert, enclosed stream, social function of river.